



한국적 기반 소식관형(消息觀型: information paradigm)의 원형

- <삼국유사>의 경문대왕 당나귀귀와 <변형>의 미다스왕 당나귀귀 비교에 의한 소식철학(information philosophy)의 모색

저자 (Authors)	박기성
출처 (Source)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2009.6, 309-315 (7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언론학회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710740
APA Style	박기성 (2009). 한국적 기반 소식관형(消息觀型: information paradigm)의 원형.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09-31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4 11:5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한국적 기반 소식관형(消息觀型: information paradigm)의 원형 - 〈삼국유사〉의 경문대왕 당나귀귀와 〈변형〉의 미다스왕 당나귀귀 비교에 의한 소식철학(information philosophy)의 모색 -

박기성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I. 문제의 제기

1. 연구 목적

인류의 생태를 조감해 보면 인간의 언전(言傳: communication)은 의견(opinion), 소식(information), 위락(entertainment)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세 가지 구성소는 시대와 취집에 따라 다른 양식으로 다양한 구성상을 이루는데 이 중에서도 본 연구는 한국에서 토착화 해온 기반 소식 양식이 구성되어온 생태로 한정한다. 개화기 이후 서양 근대 문명이 전래되기 시작하고 20세기 중기 이후 “情報(조호)”라는 일제식 개념이 “정보”로 정착하면서 “소식”은 모호해진 생태로 남게 되는데 그 이면에는 일제식 근대성이식으로 문화 정체성 말살이 있었고 재각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본 연구 주요 내용은 영어 information에 상당하는 명사는 “소식” 및 계열어이지만 “정보” 개념으로 통용되면서 기반 언어 생태와는 별개로 상용화 되어 왔다고 판단하고 소급하여 기반 맥을 되찾고 철학적 복구를 모색하는데 맞추어진다.

영어 “information”이 사용되는 용례를 관찰해 보면 지칭하는 실재(reality)는 특정 시대, 특정 취집(聚集: 사회를 지칭하는 말로 대신함), 특정 국가, 특정인에 한정하여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인류 전체 삶의 과정에 두루 내재해온 가장 기축이 되는 보편적 현상을 지칭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아프리카에서 발견 고증된 현생 인류 시조 루시 이후로 본다하더라도 범신계, 인간계, 자연계가 서로 연계되어 장구한 기간동안 “information”에 상당하는 행위와 어휘의 구사를 해온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 20세기 후기에는 사물계로 까지 확대 통용되는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인간의 삶에는 부단히 information에 상당하는 활동이 지속되어 왔고 인간 삶의 양식이 언어 구사 시대로 체계화되면서 이에 상당하는 의미를 함축하는 명사로 상대적 정착이 있어 왔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국가와 문화에 무관하게 영어 information에 상당하는 실재는 장구한 계보를 이루어 생태구성이 이루어져 왔고 이에 상응하여 명사(개념) 계보가 있어왔음에 틀림없다. 여기에 information의 재미와 철학적 논구 필요성을 가정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착상은 한국의 경우 영어 information에 상당하는 실재와 언어가 통용되어온 기반 생태의 맥을 전승하지 못하고 단절되는 서양 근대 수용 시대에 “정보”라는 말로 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본 것이다.

개화기에 영어가 전래되면서 영문 도서나 영자 신문 또는 한글 신문 영자판에서 information 역시 통용되지만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일제식 근대어 수용 과정에 많은 기반어 사용 관행이 단절되고 information 역시 정확한 판단 없이 “정보”로 점차 바뀌어간 것이다. information이 일제 강점기와 근대화 과정에 마치 특정 시대나 특정 문화 현상처럼 인식되고 일제에 의하여 많은 다른 서양 근대성을 상징하는 신조어가 등장하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현상이나 언어 구사의 전통은 훼손되어버린 상태로 남아 단절의 간극을 더 초래하게 된다.

불과 반세기 조금 넘는 기간동안 일상화되어 다의적 실용화기 이루어지기 시작한 information 번역어 “정보”라는 말은 뿌리도 없고 인식론적 기반도 없이 일상화 되어버린 어휘이다. 19세기 말기 일제의 자국 사정에 따라, 특히 군사 첩보 활동에 따라 만들어진 nachricht, intelligence 등을 “조호(情報)로 조어하여 사용하다가 information을 지칭하는 말로 전환되고 일상화 하게 되었다.(김재홍, 2004) 이러한 언어 구사 관행으로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한국에는 토착적으로 있었던 information에 상당하는 다수 언어는 전통 폼하 매장과 한자 단절을 병행하면서 거의 명맥이 모호한 어휘로 되어 버렸다.

지구촌의 삶의 양식이 information society로 체성변환이 진행되면서 information을 “정보”로 사용하는 관행은 이러한 어휘 발생 이후의 현상에 한정하지 않고 심지어 “정보”라는 말이 발생하기 이전의 오랜 기반 문물 현상까지도 소급하여 역사적 기반 사안에까지 적용하는데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용해 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있었던 information에 상당하는 현상에 사용되어온 명사와 새롭게 조어진 명사 “정보”가 혼용 혼돈되거나 상당수의 기반 어휘는 매장 내지 사멸되어 궁극적으로는 문화 정체성을 전승하지 못하고 단절하는 결과를 초래하기까지 하고 있다. 예컨대 소식, 신식, 성식, 기별, 보 등의 기반 어휘가 모두 정보로 대치되어 버리는 관행이 발생하여 개화기 이전 문물 현상에도 “정보”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까지 한다. 새로운 조어 명사를 사용할 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인식상과 의미의 편차가 발생하고 소급 적용은 그 이전에 있었던 기반 인초의 단절 및 매장까지 초래하여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한 단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식민지 통치와 문물 말살의 수탈을 경험했던 한국으로서는 문화 자주성의 지속성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재평가 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실제로 서양의 제국주의 동진과 함께 근대어의 조어와 통용이 상당한 기반 문물 정체성 혼돈 내지 격하를 초래한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서양은 그들의 지식 체계화 과정에서 핵심 개념 착안에 그리스 로마의 기원에서 두려는 전통을 관행으로 하지만 한국은 스스로의 것을 버리면서 서양을 추종하여 생태성의 단절을 스스로 간과하여 열등 종속화를 자초하는 사례까지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단절된 정체성의 재발견에 의한 복구와 타당한 언어적 재건의 실험 시도를 위하여 먼저 다음과 같은 기반 전제를 설정한다.

첫째는 영어 information으로 지칭하는 현상이 서양에만 한정된 문명 현상이 아니라 동서양 어디든 인간 생활이 성립되는 삶의 장이면 어디서나 성립될 수 있는 소치이다.

둘째는 information에 상당하는 구성행위가 성립된다면 이에 상당하는 언어의 구성도 수반되기 마련이다. 명사 규정이 기록으로 남지 못하거나 인식의 각성에 의한 언어 구사가 되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영어 information이 지칭하는 범주를 추정해 보면 인간의 공동체 어디에서나 성립될 수 있다. 한반도의 원시 시대로부터 “information”에 상당하는 실재가 있어왔고 일제가 “정보”로 번역하고 한국으로 전래되어 대중화되기 이전에도 한국 자체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지칭 명사가 사용될 수 있었음에 틀림없다.

셋째는 서양에서 지칭하는 “information”의 성립 인식 정초를 보면 인간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연원은 먼저 신과 인간의 교감에서도 통용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한국의 경우 상대적 인식론 시각에 착안한 논의와 재평가가 가능하다. 그리스인의 생활에서 신과 인간의 교감이거나 영어 용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물질 이원론적 인식 기반에서 출발하고 있음이 입증된다. 이러한 관형을 동양에 적용해 유추해 보면 information은 언전(communication)의 본질이 되며 인간으로부터 동물을 포함하는 생물, 본연물(자연물)까지 확대 규정하는 비이원론적(또는 일원론적) 기반으로 확대하는 전제의 설정이 가능하다.

기반의 재건은 이러한 비교 접근에 의하여 가능하며 서양의 근대 문명에 편승하여 전래된 information 관형이 한국에서 정착하는 과정에 기반과 근대의 비판적 사고에 의한 융섭이 아니라 근대성이라는 특정 사조에 집중되면서 이미 있어온 기반 문물의 정체성이 상당히 훼손되어 왔고 한국 사회에서의 information에 상당하는 토착적 문물 현상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구조기능주의에 치우친 해석이 주도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영어 information에 상당하는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도 있어 왔다고 가정하고 information을 준거로 하여 이에 상당하는 한국적 기반 소식 관형(information paradigm) 재건을 시도한다. 이러한 발굴에는 적어도 그 이전까지 한국에서 있어온 information에 상당 현상 규정에 번역 조어한 “정보”라는 명사는 적합하지 않으며 information에 상당하는 어휘나 당대 실재의 재발견과 이에 따른 한국적 정서와 의식이 수렴된 언어의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2. 연구 영역

한국적 information 관형 생태는 선사시대 또는 구석기를 비롯한 문물 및 암각화로까지도 소급할 수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보다 기록 양식을 갖추고 인간의 지적 체계를 갖추어가는 information 상당어 발생기를 삼국 시대 전후로 가정하고 당대의 생활상에서 읽어내고 재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신라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내용은 대표적 기록 문물로 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하는 원형의 재발견을 시도하고자 한다.

<삼국유사>에서 신라 경문왕조 부분에 기술한 설화 <임금님 귀는 당나귀귀>를 대표적 사례로 하여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수록된 당대의 문물 생태를 연관지어 접근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이미 그리스 신화 <변신>이나 중국의 설화에서도 상당한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information에 상당하는 단순한 구조 기능적 의미의 대칭적 대비 관계 시도가 아니라 인식론적 측면의 고유성을 내재한 생태구성의 대비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본론의 전개를 위하여 첫째는 서양에서 “information”으로 규정하는 실재 및 미다스왕의 당나귀귀에 상응하는 명사의 생태구성을 짚어 제보화 한다. 둘째는 information에 상응하는 어휘로

“소식”과 그 계열어를 규정한다. 셋째는 <경문왕의 당나귀귀>를 information에 상당하는 어휘 용례의 생태구성을 계보화하여 “소식” 관형으로 규정하고 접근한다. 넷째는 경문왕과 미다스왕의 당나귀귀 사례를 비교하여 상대적 고유성을 규정해 낸다.

(* 본 연구에서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된 정본은 영어로의 번역본을 택하였기 때문에 번역자에 따라 문장과 어휘 구사가 동일하지 않음을 고려하면서 인용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연구 방법

1. 중도구성주의(Jungdoh constructivism)
2. 명사의 생태구성성
3. 재규정 명사와 신조어

III. “information”과 미다스왕 당나귀귀의 생태구성성

1. information의 생태구성성
2. 고대 그리스 로마의 information 상당어와 미다스왕의 당나귀귀
3. 영어 information의 의미 계열
4. 서양 information의 생태구성상
5. information관의 동양 전래와 번역어 “情報”

IV. 한국적 기반 소식관형과 경문대왕의 당나귀귀

1. 한국적 기반 소식관형의 생태구성성
2. information 상당어 : 소식 계열어
3. 소식 상당 실물계열
4. 경문대왕의 당나귀귀

V. “information”관형과 “소식” 관형의 생태구성성 비교

1. 두 당나귀귀 신화의 유사성
2. 두 당나귀귀 신화의 이질성
3. 한국적 소식 철학의 기반과 정향

VI. 결론

본 연구는 영어 information에 상당하는 실재의 소재를 인간의 삶 자체에서 찾으면서 서양적 의미 생태를 살피고 검토하여 이를 한국 기반 문물에 적용하고 한국적 관형으로 재규정하여 재규정을 시도한 것이다. information 패러다임에 상응하여 소식 관형으로 한국적 관점을 설정하면서 개념의 생태구성 계보와 실재 사례 및 <삼국유사>에서 경문왕의 당나귀귀와 오비드의 <변신> 중 미다스의 당나귀귀를 비교한 것이다. 유사성도 있지만 상대적 이질성을 내재하는 바 이를 한국적 소식관형의 고유성으로 규정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소식 관형의 탐구는 한국적 소식철학의 체계화에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논의한다.

○ 한국적 소식철학의 모색

두 가지 이상 서로 다른 이질문화권에서 서로 다른 두 언어 체계가 성립되어온 경우 어휘는 반드시 1 : 1 대응 관계로 번역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하나의 명사가 의미태 중심의 의미 공유가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사용되어온 통용태 및 그 저변에 기반을 이룬 인식정초태(인초태)가 반드시 일치할 수 없고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상대성을 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러한 차별화되는 상대적 특성이 더 문화적 정체성이 될 수 있다. 앞에서 영어 information과 이에 상당하는 개념의 한국적 현상을 대비하여 접근을 시도한 결과 적어도 개화기 이전의 기반 실재의 생태에서 “정보”보다는 “소식” 중심의 계열어가 더 바람직한 대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소식은 이미 한자어 또는 한글로 장구한 기간동안 한국인의 인초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정착하고 대중화 해온 양식이다. 그렇다면 정보는 앞에서 있어온 “소식” 계보어와는 전혀 상관없이 발생한 인식 단절 상태의 어휘이다.

“정보”는 일본에서 조호로 번역된 말이며 일제강점기를 지나는 동안 생활 속에 주로 “첩보”를 중심으로 한정된 실재에 대하여 주로 통용되어 온 소치에 불과하며 이를 그 앞의 문물 현상에 적용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인식 논리의 시각에서 보아도 전혀 적합하지 못하다. 한일합방이후 군사 첩보 중심의 기사에서 <매일신보>의 기사에서 일상 어휘로 되며 국가기관의 공식 어휘로는 3.1. 운동이후 강점 상태의 한국 정세를 탐지 수집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 산하에 “조선정보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최초의 일이며(1920년) 이 때 간행된 <조선어 사전>에는 아직 “정보”라는 어휘조차 수록되지 않는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소식”을 비롯한 “주지” 계열어는 영어 information에 상당하는 한국적 인식 기반과 논리를 수렴한 대칭어가 될 수 있는 동시에 한국 문물 중심의 인초를 수렴하여 생태구성성이 성립되어 왔으며 여기에 적어도 한국적 정체성이 연원한 소식철학(information philosophy)의 기원을 모색해볼 수 있다. 일본은 스스로 지은 “情報(조호)”를 그대로 통용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1992년 거국적 시도로 “情報”를 “信息”으로 사용하며 첩보는 그대로 “情報”로 사용하고 있다. information society를 信息社會라 한다. 기반 인초태를 전승하는 입장을 따르고 장구한 미래의 정향을 고려한다면 한국에서도 불과 50년 통용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

한 “정보”보다는 정체성을 전승하고 있는 “소식”이 더 적합하며 “소식사회”로 규정함이 더 타당성을 내포한다고 믿는다. 우선에는 다소 어색한 구사가 될 수 있지만 “소식사회(information society)” 내지 소식철학(information philosophy)이 더 어울리고 한국적 인초에서 연원하는 기다림이 내재된 한국적 정서를 읽어내기도 용이하다.

미다스왕의 당나귀귀와 경문왕의 당나귀귀는 상호 대칭이 되는 고유한 문물 정서를 내재하는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 정본이 서술하는 당나귀귀 중심의 사태 전개와 서술은 구조 기능적 측면에서는 유사성을 가지지만 이러한 신화 또는 설화가 내재하는 저변의 인초태, 통용태, 의미태를 병행하여 대비해 본다면 아주 상대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미다스왕의 당나귀귀가 다중신의 숙명성을 배경으로 한 신에 저항하는 인간의 모순적 아둔함을 징벌하는 상징이 되면서도 정복한 프리지아를 그리스 로마 전통의 신 중심 권위에 예속시키는 암시를 내재한다. 여기에는 적어도 물질이원론적 인식에 기초한 다중신에의 예종이 전제된다.

반면에 신라 경문대왕의 당나귀귀는 뱀들과 함께 잠을 자고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자기 업보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불교적 무이중도설 기반의 상의성(연기성)을 내재하며 인간 중심적 풍자의 소치이다. 신 중심이 아닌 본연 중심의 비이원적 기반에 두며 대나무와 산수유는 인격이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동체 유대를 이룬다. 경문대왕의 당나귀귀는 인간 스스로가 지은 업보는 왕이 되어서도 벗어날 수 없는 귀결이며 대나무나 산수유 즉 만물 또는 민중이 <임금의 귀를 당나귀귀>로 조롱하는 필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설화는 경문대왕의 업적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조소적 풍자를 한 것으로도 추정해볼 수도 있다.

○ 기반 소식관형에 대한 새로운 전제와 접근

그렇다면 한국의 기반 information 현상을 규정하기 위하여 “정보”라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의한 소급 적용보다는 이 명사의 사용 이전의 경우 해당하는 실재에 대비되는 한국어의 대칭 비교 분석에 의한 규정에 의한 해석을 요한다. 다시 말하면 개화기 이전 기반 시대의 information 상당 현상에 대하여 “정보”로 규정하는 칭명은 한계가 있고 그 시대의 상대적 심식상을 전제한 언어 구사와 명사의 규명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정보”로 칭명하는 개념을 그대로 쓰는 대신에 information의 생태구성에 상당하는 포괄적 “소식”중심의 재규정을 요한다.

본 연구는 영어 information 관형을 차용하면서도 구조기능적 측면에서의 단순한 대비가 아니라 생태구성성의 시각에서 명사의 인초태, 통용태, 의미태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의 개발과 한국적 관형의 새로운 설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전제는 아래와 같다.

- 영어 information 생태와 용례의 의미 범주를 종합해 보면 인류의 발생에서부터 구성되기 시작한 행위이며 배제될 수 없는 언전을 구성하는 내용이 된다. 그렇다면 국가나 민족 또는 문화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고 이에 따른 개념의 칭명과 지칭하는 실재는 다양할 수 있다.

- 영어 information에 상당하는 실재 내지 현상을 영문 용례와 실제로 대비 추정하여 살펴보

면 서양에만 있다가 동양으로 개화기 이후에 전래되어 새롭게 생긴 현상이 아니라 동양에는 동양적 생태에 맞추어 그 이전에도 오랜 구성 행위와 상당하는 언어 체계가 있어왔다. information의 의미 범주를 보면 한국 역시 다양한 양식으로 information에 상당하는 현상이 있어 왔고 이에 따른 언어 구사 역시 다양할 수 있다.

-언어는 정태적인 생명의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세대나 문화 전승과 함께 부단히 역동적으로 상대적인 구성과 순환이 이루어지며 생태에 따라 의미 구성은 다양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information을 “정보”로 번역하여 개화기 이후 사용해온 새로운 명사로의 조작적 규정에 의하여 그 이전 기반 시대로 소급적 적용하는 것은 두 가지 변집성을 초래한다. 첫째는 기반 문물에 구성된 고유한 information 상당어를 매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는 구조기능면에서는 부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지만 고유한 정체성의 단절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착안하는 시도는 먼저 information이 가지는 의미의 함축성에 맞추어 생태를 추정하여 시대 흐름에 상당하는 계보화의 시도와 함께 자주적 고유 관형을 설정을 시도한 것이다.

21세기는 매체 융합에 이어 유비쿼터스로까지 확대하는 기술결정론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소식, 지식, 달도는 전혀 상호 철학적 관계의 검토 없이 구조기능적 산업적 효용성이 강조되고 내세우는 윤리성은 인본성 기반을 상실해 가고 있다. 변력(logos=reason) 기반의 사회 윤리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고 그 대안책의 모색은 토착적 기반 소식철학으로 소급하여 새롭게 맥을 재발견하고 구성해가는 시도에서 시작하는 것도 여러 방법 중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